



군산근대역사박물관서 전승택 개인전 '우두머리'

## 낙관석에 새겨지는 전서체의 '조형미'

내달 6일까지 '어청도' 등 서각 작품 선배

장미갤러리가 군산출신의 작가들의 개인전을 잇달아 개최할 계획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9월 6일까지 박물관 분관인

장미갤러리 2층 전시관에서 우정(宇庭) 전승택 개인전 '우두머리'를 개최한다.

전승택 작가는 군산 출신으로 최근까지 주로 서울에서 전시 및 작품활동을 해온 전각·서각 작가로, 전각은 조형미가 돋보이는 전서체를 낙관석에 새기는 예술 장르이며, 서각은 글씨나 그림 등을 나무에 새기는 동양예술의 한 분야로 다소 생소한 장르이다.

이번 전시에서 우두머리, 청빈라도, 미재생명, 웃음, 삶 등의 작품과 함께 군산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은 어청도, 군산 맛·멋 등의 작품 등 총 70여점의 전각 및 서각 작품을 선보인다.

전승택 작가는 '우두머리' 개인전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소 생소한 장르인 전각과 서각의 예술 세계를 알리고 더 나아가 군산의 역사와 자연, 인물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작품에 담아 군산을 알리는 데 작으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

박물관관리과 관계자는 "장미갤러리 2층 전시관은 군산출신의 작가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군산시의 문화예술 경쟁력을 홍보하고자 마련된 공간으로, 연초 전시 참여 공모를 통해 올해 작가 5인의 전시 계획을 확정지었다"며, "전승택 개인전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중견 작가 개인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 순창 문화공연 '유튜브로 보세요'

열리는 공연 모두 '순창튜브'에 게재

순창군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현장에서 공연 관람을 꺼리는 군민을 위해 앞으로 열리는 문화공연을 온라인 플랫폼인 유튜브로 관람할 수 있게 적극 활용한다.

군은 지난달 9일 있었던 타악·소리 콘서트 '타복'을 순창군 유튜브 채널인 '순창튜브'에 업로드했다. 스마트폰이 있는 누구나 유튜브 앱을 통해 순창튜브를 검색하면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이 있는 주간이면 전국 우수한 공연을 유치해 군민들에게 문화공연을 제공해왔다. 인근 도시로 나가야 관람할 수 있었던 공연을 관내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군민들의 삶의 질도 한 단계 높아졌다. 올해는 아쉽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상반기에는 공연 관람의 기회가 적었다.

이에 군은 코로나 블루로 심신이 지쳐가는 군민을 위해 오는 13일 '비보이 스캔들' 공연을 시작으로 연극, 국악, 클래식,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오는 연말까지 10여 회 정도 열 계획이다.

군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거리두기 객석제와 순차적 입장제 등을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월 2회 가량의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연 현장에서 유튜브에 업로드할 동영상 제작도 같이 병행해 앞으로 열리는 공연 모두를 순창튜브에 게재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마음에서 환경까지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마음공부의 장' 올해 세종도서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박영수) 마음인문학연구소 학술총서 '마음공부의 장: 마음에서 환경까지'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 세종도서 학술 부문에 선정됐다.

마음인문학 학술총서 '마음공부의 장'은 마음에 미치는 환경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마음의 다양한 병증이 환경 변화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으며, 철학, 종교, 교육 및 의료 환경, 건축 디자인, 확장현실 등 국내외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마음과 환경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

또한, 인간의 문제를 내적인 마음의 측면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마음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상과 환경의 변화로 일어날 수 있는 마음 작용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고, 마음공부의 사회적 역할과 마음의 주체인 인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실천적 관점으로 재구성했다.

한편, 세종도서는 학술 분야 발전과 국가 지식기반사회 조성을 위해 해마다 10개 부문의 우수도서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400종의 도서가 학술 부문에 선정됐으며, 선정 도서는 전국 공공 도서관과 전문 도서관, 초·중·고교·대학 등에 보급될 예정이다.

2010년 한국연구재단 인문학국제지원사업에 선정된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는 '마음인문학-인류 정신문명의 새로운 희망'을 비전으로 마음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마음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인문융합적이고, 실천지향적인 연구 및 사회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마음공부의 체화·일상화·사회화', 마음공부 공동체 구현을 위한 '마음혁명의 마음인문학'이라는 새로운 비전 수립을 통해 인류의 행복한 삶, 공존과 상생의 사회문화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현대인들이 겪는 마음의 병증  
환경 변화와 연결 여부에 주목  
인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  
실천적 관점으로 재구성

## 12일부터 '군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버스킹'

군산시립예술단이 오는 12일 선유도 공연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버스킹'을 추진한다.

찾아가는 버스킹은 코로나 19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을 음악으로 위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연장 방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버스킹은 선유도 수변무대를 비롯 은파

물빛다리 야외무대 등 군산시 일대에서 진행되며 시민들이 알기 쉬운 클래식과 영화음악을 준비, 쉽고 친숙하게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홍규 예술의전당관리과 과장은 "코로나19로 시립예술단 공연이 축소되어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이 줄어들던 건 아닐까 걱정스러웠



다. 그러나 이번 버스킹으로 시민들과 더욱 더 친근하게 만날 수 있어 무척 기쁘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